

◇심장수술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흉골병을 절개하지 않는
정중흉골절개법

최종범, 양현웅, 한재오, 고광표, 최순호

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배경 및 목적 : 심장수술에서 정중 흉골절개법은 대동맥 및 정맥 카놀라의 삽입, 전향 및 후향 심정지법의 사용, 심장 내 병변의 쉬운 접근 등의 장점이 있다. 이런 장점을 살리고 피부 절개선 및 흉곽의 손상을 줄이고자 일상의 심장내 병변의 접근방법으로 변형식 정중흉골절개 방법을 사용하고, 그의 장점을 찾고자 하였다.

방법 : 흉골병을 절개하지 않고 남겨놓은 정중 흉골절개법을 판막질환, 선천성심장질환, 관상동맥질환이 합병된 판막질환, 좌심방 악성종양 등의 26명의 심장 내 병변 환자[연령, 16-68세]에서 이용하였다

결과 : 수술 중 합병증은 없었으며, 완전 정중흉골절개로 전환 해야하는 경우는 없었다. 모든 환자는 살았고 수술 후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. 두 환자에서 수술창의 표재상 열개가 있었으나 퇴원 전에 치료되었다. 수술 후 24시간동안 평균 흉관 배액은 242.7ml으로 소량이었고, 외과병동에 평균 입원기간은 6.2일이었다. 7.4개월의 추적기간동안 흉골절개 부위나 어깨 부위의 동통, 또는 손 및 팔의 신경증상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.

결론 : 흉골병을 남긴 정중 흉골절개는 심장 내 질환의 수술을 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이며, 외과적 손상과 수술 후 만기적인 동통을 막고, 목 부위의 절개반흔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절개 방법으로 생각한다.

책임저자:최종범(원광의대 흉부외과) 발표자:최종범(원광의대 흉부외과)